

공모지원 선정 이유 및 사유서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

2014년도 무용창작산실 우수작품 재공연지원은 2013년도 무용창작산실(발레분야는 2011년부터 시행)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기존 우수작품을 수정 및 보완하여 레퍼토리화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지원사업의 초점은 무용창작산실의 지속지원과 기존 작품의 재공연비 지원에 있으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무용창작산실사업을 통해 우수작품으로 선정 받았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며, 모두 12개 단체가 지원하였다. 심사위원들은 (1) 작품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2) 공연작품의 예술성 (3) 공연단체의 역량을 심의기준으로 가지고 지원서와 영상자료를 검토하였다. 모든 작품이 예술적 창의성과 레퍼토리 개발 가능성을 지녔으므로 심의위원들은 심의 대상의 범위를 좁히는데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 수차례의 논의 과정 끝에 심의위원들은 작품의 레퍼토리 가능성, 공연장 확정 여부, 성실한 수정 사항의 제시, 스태프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으로 평가의 범위를 좁히기로 하였으며, 안무가나 단체의 활동기반이 비제도권일 때는 배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조심스러운 논의를 이어간 끝에 심의위원들은 장유경무용단의 <푸너리 1.5>은 2013년 한국(전통)무용창작산실 사업에서 최우수작품으로 선정되었기에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현대무용 분야에서 Collective A의 <Fake Diamond>와 발레 분야에서 조윤라발레단의 <크리스마스 캐롤 스쿠르지>, 이원국발레단의 <스코틀랜드의 꽃: 맥베드>, 정형일ballet creative의 <Untitled>를 선정하였다. <Fake Dimond>는 작품을 확장하여 로비를 활용한 '전시퍼포먼스'로 새로운 공연유형을 창출한다는 점, <스코틀랜드의 꽃>과 <크리스마스 캐롤 스쿠르지>는 캐릭터를 살린 스토리텔링형 작품으로 무용의 대중화를 지향한다는 점, <Untitled>는 베이직하나 컴포지션을 강조한 안무와 발레와 미디어아트와의 융합모델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무용창작이 나아갈 길을 어느 정도 제시해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후 예산서를 검토하여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이나 특정 항목에 과다 책정한 부분들은 조정하여 예산을 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선정 안무가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아쉽게 탈락한 안무가들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이다.

2014년 무용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